



<올림픽>역도 전상균은 '히든 카드'

송고시간 I 2008-08-18 15:36











한상용 기자

<올림픽> 역도 전상균은 `히든 카드'

(베이징=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한국 역도 국가대표의 '히든 카드' 전상균(27.한국조폐공사)이 2008 베이징올림픽 역 도 최중량급에 도전, 메달권에 진입을 노린다.

올림픽에 처음 출전하는 전상균은 19일 베이징항공항천대학 체육관에서 열릴 역도 마지막 날 남자 최중량급(+105kg) 경기에 출전한다.



남자 최중량급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나이를 뽑는 상징성을 갖춘 체급인 만큼 이번 역도 종목에서 대미를 장식하 게 된다.

185cm에 몸무게가 160kg에 이르는 전상균은 국내 헤비급에서 는 이렇다할 적수가 없는 상태지만 동유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 무대에서는 동메달 이상을 겨냥하고 있다.

강원도 홍천중을 다니던 14살 때 바벨을 처음 들었던 전상균은 2006년 이후 최중량급에서 정상의 자리를 내 놓은 적이 거의 없 다.

지난 4월 경북 포항에서 열린 왕중왕 역도대회에서도 가볍게 3 관왕에 올랐고 베이징올림픽 스타트 신청기록을 보더라도 2,3 위까지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2000년 시드니대회부터 2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인간 기중기' 후세인 레자자데(30.이란)가 부 상 후유증으로 끝내 올림픽에 불참, 강력한 우승후보가 사라지면서 색깔에 관계 없이 메달은 떼 놓은 당상이라는 의견 도 있다.

역도 대표팀 코칭스태프도 전상균이 국내에서 세웠던 자신의 최고 기록을 이번 올림픽에서도 들어 올린다면 메달 가능 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상균의 최고 기록은 올해 왕중왕대회에서 세운 인상 200kg 용상 240kg 합계 440kg이다.

같은 체급에 출전하는 빅토르스 스케르바티스(라트비아)와 마티아스 슈타이너(독일)가 합계 447kg, 446kg을 각각 기 록하는 등 일부 선수들이 성적 면에서 전상균에 다소 앞선다는 평가지만 당일 컨디션이 기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 는 종목 특성상 역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형근 남자 역도 대표팀 감독은 "일단은 전상균이 메달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스타트 신청 기록에 서 전상균이 공동 2위에 있을 지라도 다른 나라 선수들이 전력 노출을 피하기 위해 실제 기록보다 낮춰 기재했을 가능성 이 높아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핫뉴스 →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신' 기네스북 등재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Ŕ	관련기	시
~		

<올림픽> 포상없는 역도연맹, 금메달 따도 `빈손(?)'

<올림픽> 한국 `10-10' 눈앞..아시아 2위 유력

<올림픽> 배드민턴 금 타고 '이용대 신드롬' 확산

<올림픽> 中 '짝퉁시장' 30년來 최대 호황

<올림픽> 장미란 세계신 우승에 '심리처방' 한몫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8/18 15:36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 결국 우크라에

링컨 등 후보군"

▶ 02:22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픽 Editor's Picks

● 영상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 크라에

● 뉴스



尹당선인 "물가상승 장기화 대비...금리인상 취약층 피해 최 소화"

안철수 "공동정부 정신 훼손될 일 있었지만...임기 끝까지 최 선"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댓글 많은 뉴스

련과목 2개 수강"



뭐하고 놀까? ## 😛 →













sns **f**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v